

마음을 부처가 되다 다한 동심이



동화책을 펼치듯, 눈앞에 나타난 오세암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노란 가을꽃이 피어있었다.

동화 속 암자

18 인제 오세암 (五歲庵)

겨울 바닷가에 눈이 내린다. 대어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앞 못 보는 소녀의 손을 잡고 날리는 눈 속에 서있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넓게 내린다.” 사내아이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누나에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다.

정재봉(1946~2001)의 동화 <오세암>은 첫 장면부터 가슴을 뻐근하게 한다. 설악산 오세암의 오세동자와 백의관음보살의 설화를 바탕으로 쓴 중편 동화다.

“너희들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니?”
“우리는 집이 없어.”
“그럼 여기서 자겠단 말이나?”

갈 곳 없이 떠돌던 남매 감이와 길손이는 스님을 따라 절로 가게 된다. 감이와 길손이의 절 생활이 시작되고 슬픈 동화 한 편이 시작된다.

눈 내리는 동화 속의 오세암을 덮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백담사에서 걸어서 두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오세암이 있다. 쉬운 길은 아니다. 설정 스님도 눈길에 막혀 끝내는 가지 못하고 길손이를 부처님 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큰절을 나와 스님과 길손이가 암자를 향해 걷는다. 길손은 누나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에 길을 나선다.

“거기에도 좋은 샘이 있단나 그리는구나.”
“스님 바보야. 내가 물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럼 물이 아니고 무엇이나?”
“환구름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야. 요 앞날 개울에서 건져왔거든.”
스님과 길손이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가끔씩 다람쥐가 따라 붙었고, 덮고 온 동화의 장면 장면이

따라왔다. 개울물이 눈물처럼 흘렀다.

설악산 오세암은 647년(선덕여왕 13)에 자장 스님이 세웠다. 스님은 관음조의 인도를 받아 관음보살님을 친견한 후 관음암을 세웠고, 설화 속의 오세동자로 인해 후에 오세암으로 바뀌었다. 작가 정재봉은 그 오세동자의 전설을 듣고 암자를 찾아 나섰고, <오세암>을 썼다.

그의 동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늘 소년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는 어른이 될 아이들을 위해, 아이였던 어른들을 위해 동화를 썼다.

오세암이다. 노란 가을꽃이 손을 흔들었다. 풍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가을바람이 꽃과 풀을 누이고, 숲을 누이고, 산을 누이고 있었다. 길손이와 스님이 관음암에 당도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요. 정말이에요. 내 소원을 말할게요. 내 소원은 엄마를... 엄마를 가지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길손이는 골방에 모셔진 관음탱을 보고 엄마라고 부른다.

이튿날, 스님은 양식을 사러 산 아래로 내려가고, 암자엔 길손이 혼자 남게 된다.

“금방 갔다 오는 거야?”

“그럼, 금방 오고말고. 길손아, 내일 내가 없는 동안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거나. 알았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

“오고말고. 네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면 꼭 오시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야?”

가을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다. 산마루엔 구름이 감기고 빗줄기가 다녀갔다. 동화 속에 큰 눈이 내린다. 산 아래로 내려간 스님은 눈길에 막혀 암자로

들어오지 못한 채 부처님을 부른다. 길손이를 부르다 는 위에 쓰러지고 만다.

“이 어린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티끌 하나만큼도 더 없지 않았고 털하기도 없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이 아이는 부처님이 되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려 스님과 감이가 길손이를 찾아갔을 때, 길손이는 관세음보살 품에 있었다. 스님은 길손이한테 절을 했다. 눈을 뜨게 된 감이도 따라서 절을 했다.

장작불이 타오른다. 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가서 환구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가고, 길손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던 감이는 눈물을 흘린다. “저 연기 좀 불들어 줘요, 저 연기 좀 불들어 줘요...”

오세암에 간다면 마음을 다해서 갈 일이다. 감이는 그렇게 눈을 떴고, 길손이는 그렇게 부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용문-오세암]

글·사진 = 박재환 기자 wanhollo@hanmail.net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범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결을 한지붕 밑에서도 좋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부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와도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불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용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 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범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범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범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범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 락,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